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리라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씻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개역, 요한복음 20:1~9]

조 금 있으면 입시철이 다가 오는데 제일 잘 팔리는 것이 옛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옛 나눠주고 선생님께 일부러 하나 가져옵니다. “선생님 옛 드실래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너도 옛 하나 먹을래?” 이러면서 웃죠. 옛,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옛 먹을래?’ ‘옛 먹으라’ 이러면 뜻이 이상하게 됩니다. 어찌다가 옛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저도 말로만 들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1965년 입시파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해 입시 문제에 옛의 재료가 무엇이나고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정답은 디아스타제였는데 다른 보기에 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무를 가지고 옛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고 실제로 무로 옛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라고 답한 학생도 맞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나라가 온통 뒤집어질 만큼 시끄러워진 겁니다. 무를 정답으로 한다 안한다 하는 와중에 교육청에 무를 가지고 곧 옛을 가지고 와서 ‘정말 옛이 안되냐? 옛 먹어 볼래?’ 그러면서 옛 들고 데모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도 ‘옛 먹을래?’ 그러면 뜻이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로라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시험 문제를 만들었는데 왜 답이 두 개가 됩니까? 65년도에 그렇게 입시를 치르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입시에 정답이 두 개짜리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시험만 치르면 정답이 두 개다 아니다 하고 시끄럽습니다. 적어도 입시 문제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왜 지금까지 답이 두 개짜리가 나오느냐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최고의 시험, 사법시험에도 문제를 잘못 냈다고 해서 법적으로 또 걸려 있습니다.

정답 두 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수학이나 물리는 어중간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과목 가령 국어나 영어 같은 인문과목은 정답이 여러 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험 내는 사람들이 꾀를 내죠. ‘다음 중에서 정답과 가장 가까운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면 답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지정한 답이 없다면 그 다음 다른 것이 또 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정답이 여러 개 될 수 있는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정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풍을 언제 갈래? 정답이 있습니까? 어디 갈래? 이것도 정답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한 쪽만 맞고 반대쪽은 완전히 틀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주의 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고 또 반대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이 말도 함부로 할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일은 답이 그리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 잘못했고 한 사람이 피하려고 애를 애를 쓰다가 결국 안되어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딱 이거면 이것, 저거면 저것 이렇게 분간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본문에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참 달라요. 정말 다른 두 사람이 협력을 잘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생각이나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이것 하나 때문에 서로 다름에도 잘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내고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울고 싶고 고통에 젖어서 슬픔을 이길 수 없는 날이었지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것에 마음 아파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아픔도 아주 큰 아픔인 것 같아요. 남편을 잃어버린 어떤 부인이 “남편이 그렇게 갔는데 내가 해 줄게 아무 것도 없더라.” 그게 그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남자 여자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입대하는 부대에 따라갔는데 입대하기 전에 “돈을 가져가도 아무 쓸데없고 짐만 될 것이다. 아 빠 줘라.”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다 받아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뉘였는지요? “사람이 어떻게 그리 무정하고 매정할 수 있느냐?”고 “500원짜리까지 다 빼앗아 오고?” 다 빼어 온 게 아니고 도와 준 거예요. 가지고 있어봐야 전혀 쓸 수도 없고 짐만 됩니다. 잃어버리면 아깝기만 하고요. 그런데 “지가 불펜도 사야 될 거고 뭐도 해야 될 건데...” 제가 건디다 못해서 그 이튿날 다시 갔습니다.

가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 여자 때문에 일부러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사정을 아는 동생이 전화를 해서 “형 거기 갈 필요 없단다.” 전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돌아갈까 어쩔까 하는데 “나선 김에 가 봅시다.” 하고 갔습니다. 정문까지 가서 현병한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이 말 듣고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아서 “사람이 어떻게 매정하게 동전까지 다 빼앗아 가느냐?” 이래 가지고 제가 얼마나 뉘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할머니는 입대하는 아들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한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고 주님은 무덤에 계시는데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여러분, 여자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원래부터 간이 큰 여자입니까? 마리아가 용감한 여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 밤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미명에, 어두운 때에 무덤을 향해 갔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얻은 별명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거 동락했던 제자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정말 영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 더군다나 당시 형편에서는 여자가 증인될 자격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은 마리아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남자들 공이 크냐 여자들 공이 크냐? 이것 따져보면 물론 이것을 한쪽으로 꼭 답을 내릴 일은 아니지만 여자 성도들의 공이 얼마나 큰지 우린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은 모두 여자죠? 혹시 남자 있습니까? 구역을 돌보면서 구역을 맡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교회 구성에서 중요합니까? 그런데 전부 여자들이 맡아 있잖아요.

재미있는 현상도 있네요. 남전도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늘 부부동반으로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왜 남자들끼리 안 하고 꼭 부부동반으로 합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왜 강해집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갑자기 사람이 슈퍼맨처럼 변하는 경향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더 강합니다. 여자들이 사랑에 빠지면 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갈 만큼 용감해지는 겁니다.

남자들은 꼭 기억해 두세요. 여자는 훈련시키고 교육시켜도 잘 안됩니다. 사랑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여학교에 있어봐서 좀 압니다. 여학교 아이들, 아침 조회할 때 줄이 안 서지더라고요. 아무리 가서 교함을 질러도 줄을 잘 안 서요. 여자 교장선생님이 오죽하면 “애들아 그늘에 들어와서 내 얘기 5분만 들어 달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안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저래서 여자들은 군대 안 보내는구나’ 싶었어요. 아무리 야단을 쳐도 5분을 못 넘기더라고요. 야단치고 훈련시켜도 안되는 게 여자인데 대신에 사랑을 받으면 슈퍼 우먼으로 돌변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훌륭한 부인을 만들어 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누구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1절 뒤편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계속해서 **다른 제자에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한입니다. 마리아가 이 두 제자에게 말을 전했더니 이 둘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해서 정말인가 싶어서 무덤을 들여다 보고 있는데 뒤에서 뛰어온 베드로가 주저함도 없이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행동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람인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긴 하는데 다른 요한입니다. 세례요한도 있고,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도 있고, 또 다른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이 글을 쓰면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넣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 대신에 ‘**그 다른 제자가**’ 혹은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나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홀로 남았다는 것은 교회에 가장 큰 어른이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제자로 남아 있을 그 때에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단 한군데도 넣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는지 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달리기는 요한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무덤가에 와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살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성격이 한편으로는 내성적이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색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별명이 우뢰의 아들, 우뢰입니다. 천둥 말입니다. 그렇게 내성적이고 사색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의 별명이 왜 천둥이겠습니까? 조용한 사람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지만 한번 성질나면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짐작이 가시죠?

순한 사람 잘못 건드려 놓으면 뒷감당이 안됩니다. 평소에 화 잘 내는 사람은 적당히 구슬려 놓으면 금방 사그라집니다. 그런데 평소에 조용하고 과묵한 사람이 성질나면 감당 못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지만 아주 거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방해하는 제자들을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사람들을 다 태워 없애도록 해 버릴까요?’ 아주 말이 거칩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생각이 깊고 조용한 요한이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의 급한 성격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무대加里입니다. 생각을 많이 안 하고 행동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요한 보세요. 무덤까지 뛰어와서 정말인가 하고 들여다 보고 있는데 뒤에서 그대로 썩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잘못하면 벽에 머리를 박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행동이 빨랐습니다.

매사에 베드로가 먼저 나섰다가 야단도 먼저 맞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멋진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래서 칭찬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 누가 나서죠? 여전히 베드로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가 들은 말입니까? 여전히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것을 발견하고 입을 먼저 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여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겁도 없이 물 위를 걷습니다. 몇 발자국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걸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따르겠나이다’고 용감하게 나섰다가 비참하게 거꾸러진 사람 역시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가 보기에 요한은 매사에 답답합니다. ‘동작이 그렇게 느리고 생각이 그렇게 많아서 일이 되냐?’ 베드로가 볼 때 요한은 그랬을 겁니다. 거꾸로 요한이 베드로를 볼 때는 매사에 불안할 겁니다. ‘저렇게 생각 없이 일부러 저질러 놓고, 저것 봐 또 야단맞잖아!’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교회를 참 잘 이끌어 갔습니다. 참 아름답게 협력하며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 제사장 집을 무사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못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밖에 서 있었는데 들어가게 해 준 사람은 요한입니다. 들어가서 사고 친 것은 베드로입니다. 아주 협력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저 해변에 서 있는 저 분이 예수님이시다’ 누가 발견한 지 압니까? 또 요한입니다. 요한이 ‘주시라’ 하는 말이 떨어지자 마자 베드로는 옷도 안 벗고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발견하는 것은 요한, 말 듣고 예수님께 뛰어가는 것은 베드로, 두 사람의 대조적인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앞장서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요한이 뒤에서 뒷바라지 해 주는 형국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앓은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걸 누가 그랬습니까? 이 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이 그런 말 했을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바로 전에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저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구절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정해놓고 제목은 이 사도행전에서 따 왔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은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 늘 함께 다닙니다. 그런데 나서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적어도 초창기에는 베드로가 앞장을 서고 요한이 보좌 역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이 능력이 떨어져서 베드로의 보좌역을 한 것 같습니까?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자들을 셋만 데리고 갔을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늘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특별한 의무를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았다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남은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맺어 놓으신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죽을지언정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언제 철 들런고?’ 아니면 ‘저렇게 큰소리 쳐 봐야 오늘밤 넘기기 전에 날 모른다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저래 가지고 어떻게 교회의 주춧돌이 되겠느냐?’ 싶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베드로에게 요한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저렇게 덩벙대고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에게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요한을 붙여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가깝게 주셨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히 함께 데리고 다니셨다는 사실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묶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명을 맡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교회 건설의 사명은, 물론 다른 제자들이 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교회 건설의 사명은 베드로에게 맡기신 듯합니다. 베드로, 뜻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교회 건설에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앞장 서서 교회를 세워 나갔죠. 그러면 요한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십니다. 교회 건설의 임무를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건 베드로의 이야기고 그러면 요한에게 무슨 임무를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그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겁니다.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은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느라고 박해를 피해 다녔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베드로에게 교회 건설을 맡겼고 요한에게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신 듯 하지만 신약성경을 쭉 살펴보면 베드로는 교회 건설의 초기임무를,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기신 듯 하고 요한은 세워진 그 교회를 잘 돌보는 일을 맡기신 듯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느라 순교를 당하고 이리저리 다 사라진 후에 요한은 남아서 교회를 돌보며 복음서를 썼습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와 서신서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다른 세 복음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본다면 복음서의 완결판입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확실하게 신구약 전체의 완결판입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교회 기초를 닦고 세우는 일을 맡기셨다면 요한에게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교회를 잘 양육하며 튼튼하게 세우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사회나 심지어 가정까지도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나 어느 한 사람의 지도력이 이 끌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전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왕이 손댈 수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전권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감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왕인데 하고 드렸단 말입니다.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이 아니고 백성을 통치하는 권한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사장이 했습니다. 만약에 왕이 잘못하면 선지자가 와서 왕을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렇게 되면 왕권이 너무 흔들려서 나라가 안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홀로 위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해지도록 뒷바라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빼고 다윗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굽니까? 요나단을 뺄 수 없습니다. 요나단 없는 다윗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왕위를 버리면서까지 다윗을 밀어주었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로 나서기까지 적어도 십 수 년이 걸립니다. 거기까지 잘 이끌어 준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교회를 잘 세워갈 사람을 찾다보니 십 수 년 전에 고향으로 돌려보냈던 바울이 생각난 겁니다. 바울의 고향까지 가서 초야에 묻혀 있던 사람을 불러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없이 바울의 위대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보세요. 아론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가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할 때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여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답변은 ‘그 입 누가 만든 거냐?’ 그러죠. 그 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둔한 입을 말 잘하도록 고치려면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도 없을텐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입은 그냥 두고 아론을 붙여주었을까요?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입을 고쳐주면 모세가 단독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러나 입은 고쳐주지 않고 말 잘하는 형을 붙여준 겁니다. 두 사람이 사역하라는 거죠.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협력하면서 일해 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단독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 되셔서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 꼭 혼자 다 하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한 사람이 앞서고 뒷사람 밀어주고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견이 서로 다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밀고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저런 의견이 쏟아

저 나오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아심이 들 때 유심히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내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고 저런 교회가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 안에서 기타 치면 난리가 났지요. 세월 많이 지나서 지금은 기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독한 사람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전을 찍습니까?” 야단을 치더라구요. 우리는 사전을 찍어도 괜찮고 기타 치면 야단치는 정도였는데 “세상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전을 찍습니까?” 하고 야단을 치던 분이 아직도 지옥에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지독한 교회가 있구나.’ 싶었죠.

청년 찬양단이 ‘물댄동산’입니까? 수고가 참 많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드림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세상에 드림을 갖다 놓고 두들기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아직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드림이 다 들어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생각을 좀 바꾸고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면, 아니 정말 진리 문제일 것 같으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면 내 생각에는 ‘이건 도저히 안 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 왔는데 저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되더라도 한번쯤은 뒤집어 보시고 생각을 바꾸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틀렸다고 하기 전에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강단에 꽃을 꽂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자체가 참 불행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이 뭘니까? 많은 사람이 ‘하자’ 그러면 하면 되죠. 나는 절대로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싫어’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이 하자고 그러니까 따라가 주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안했으면 좋겠다면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장식을 하는 것은 진리고 안 하는 것은 비진리입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아노 한대 사 들여 놓고 왼쪽에 놓을 것이냐 오른쪽에 놓을 것이냐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오른쪽에 놓자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새로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오른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오른쪽에 놓을 수도 있고 왼쪽에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숫자가 적은 사람이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얼마쯤 지나다보니 ‘봐라 왼쪽에 놓는 것이 더 안 낫겠냐?’ 그러면서 동의를 얻어가면서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로 해서 교회가 갈라지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집사로 있을 때는 교회 안에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다른 교회도 잘 있는가보다 이렇게 여겼는데 명색이 강도사가 되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소식을 듣고 하다보니, 세상에, 교회 안에 문제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교인들이 모여서 패가 갈려져서 싸우고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진리 문제로 그렇게 갈라지는 것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진리 문제라면 피 터지도록 싸워야 합니다.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것이냐 왼쪽에 놓을 것이냐 이런 문제로 교회가 갈라진다고요? 무엇과도? 그걸로 인해서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쪼개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쳐 보세요. ‘옛 만드는 재료가 뭐냐?’ 해서 나라가 갈라졌다고 쳐 보세요. 우리 후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할 일이 되게 없었네?’ 아니,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교인들이 점심 때 밥 먹을래? 국수 먹을래? 하다가 교회가 갈라졌단다. 이거 밖에서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혀 가능성 없는 얘깁니까?

교회만 그렇습니까? 부부간에 싸우는 문제가 어디 나라가 흔들릴 만큼 큰 일을 가지고 싸웁니까? 사소한 일로 실컷 싸우다가 우리가 왜 싸우나 싶어서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참 웃기는 일 가지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가만히 두 사람의 행적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남의 일이라서 우리가 별로 대조적이라는 것을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생각이 깊고 한 사람은 동작이 빠르고 이런 두 사람을 붙여 놓으면 거의 매일 싸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기 좋게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보완이 되기도 합니다. 믿는 성도들끼리 의견이 갈라졌을 때 “내 말이 어디 틀렸는데?”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죠. 대부분 내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갈라지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이 맞지만 절대 다수의 의견이 다르면 잠시 내 생각을 접고 따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생김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아니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안전장치라고 인정을 하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여러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제자가 되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가정을 다 이루어 가시도록 부락을 드립니다.